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2년 6월 24일(금)
--(음력 5월 26일)--
Пятница
24 июня 2022г.
№ 24 (11991)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슬라와 광장.

(이예식 기자 촬영)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대조국전쟁 전사자들을 기려

6월 22일 추모와 슬픔의 날을 기념하여 유즈노사할린스크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할린 주민들이 대조국전쟁의 전사자들을 기리는 집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대조국전쟁 참전자, 후방 노동전선 참전자, 지역 주민, 주 및 시 정부기관 대표들, 국제주의 군인, 의회 및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1941년 6월 22일은 러시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날 중 하나로 81년 전 독일이 소련을 침공해 전 지역 주민들의 평화로운 삶을 앗아갔다.

1,418일 밤낮 이어진 끔찍한 전쟁으로 모든 것은 파괴됐고, 2천7백만 명의 국민이 사망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이날을 기리며 불멸의 성화가 있는 슬라와(영예) 광장에서 집회가 열렸다. 앞서 이날 오전 4시에 <추모의 불을 붙이자>는 행사가 진행됐다. 추모와 슬픔의 날을 기리는 이 행사는 전통이 되어 2013년부터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청년수도센터가 진행하고 있고, 매해 참가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

행사는 목넘 후, 불멸의 성화단 주변에 200개 이상의 불꽃(양초 캔들)으로 <помним(기억합니다)>란 글자를 만들고 추념했다.

6월17일은 청년의날 친애하는 사할린과 쿠릴 청년 여러분!

청년의 날을 맞아 여러분에게 축하하게 되어 기쁩니다! 젊음은 삶에 가장 중요하고도 좋은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청년들은 모든 새로운 것에 개방적이며, 자신의 대담한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한 에너지로 충만합니다.

청년들과 많은 소통을 하는 가운데 이들은 사할린주를 사랑하고, 자신의 미래를 이곳에서 꿈꾸며, 재능있고, 진취적인 청년들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할린과 쿠릴열도는 청년 여러분의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시킬 수 있는 곳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고임금의 일자리를 찾거나 창업을 할 수도 있고, 가정을 꾸리며, 편안한 집도 장만하고,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 기술작업반'이라는 새로운 기획이 구성되었습니다. 여름방학에 300명의 대학생들이 사할린의 기업들에서 가치 있는 근로 경험을 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모든 계획한 것을 성취하길 바라며, 이에 우리는 여러분을 반드시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사할린주 사회 분야에 예산 지출, 전국 상위 5위 안에 들어

2021년 주예산 집행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모임에 정부 산하 기관들, 의회, 사회 단체 대표들과 지역 주민들 약 100명이 참석하였고 지방에서도 화상회의를 통해 참여했다. 공청회 방송은 OTB와 소셜 네트워크로 전달됐다.

사할린주 재정-예산 분야로서 2021년은 생산적이었다. 사할린주 정부는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고 향후 경제 개발을 위한 예비비를 조성할 수 있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탄화수소의 수요 감소, 석유달러의 침체로 2021년 주 예산 수입이 크게 감소되었으나 사업가와 주민들 지원책을 제때 채택해 경제의 부정적 현상을 막도록 했다. 2021년은 계획상 비상 정책과 우선적 목표 설정을 채택해 사회적 지원량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유지하며, 사할린과 쿠릴의 경제 운영을 확고하게 했다."고 사할린 정부 알렉세이 벨리크 총재가 말했다.

사회 분야에 대한 지출은 900억 루블리로 전체 지출의 55%에 달하며, 사회적 정책 자금으로 320억 루블리가 배정되어 이 중 210억 루블리가 저소득층 지원에 배정됐다. 따라서 사회적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24만 명이다.

"우리는 모든 채택된 사회적 책무를 준수하고 이행했으며 이외에도 주민 지원의 새로운 정책을 실시했다. 그 예로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의료기관을 다니는 북부 쿠릴열도 주민들에게 현재 폐

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스키에 주택 임대 비용을 보상해주고 있다.

2021년 사할린주는 사회 분야에서 주민 1인당 예산 지출에 있어서 러시아 연방 행정자치체 중 상위 5위에 진입했다."고 올가 로파짜나 주 재정부 장관이 보고했다.

2021년에 사할린주는 러시아 보건 감독청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의 확산 여건 속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 공로>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이는 사할린 섬들의 보건 분야를 현대화하고, 의료적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대규모 사업의 결과로서 이에 보건 분야 명목으로 240억 루블리가 배정됐다.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의 건강을 보전하고 강화하며, 기대수명을 늘리고, 근로 활성화를 확대하는 것이 주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또한 병리 조기 진단에 대한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특별 관심계층은 고령의 주민들이다. 특별히 이들을 위해 유즈노사할린스크와 지방 의료기관에 병리 단계를 조기에 발견하고 제때 치료를 받도록 돕는 심층진단센터가 개설돼 있다."고 나탈리아 코르슈노와 주 두마 의원이 언급했다.

주 예산이 사회적 지원을 목표로 했음에도 투자 방면을 유지했다.

주요 시설 보수공사에 220억 루블리가 지출된 가운데 이 자금으로 다양한 사회 및 경제 분야의 40개 시설물을 건설하고 재건했다. 그중 3개 학교,

2개 유치원, 유즈노사할린스크에 구급대 차량 배치소, 산부인과 병동, 치르운브드 마을에 마을 민속문화센터, 보건 및 체조 단지와 2개 운동장이 있다. 와흐루예브 마을과 알렉산드롭스크 사할린스키 구역에 난방 및 상수도 시스템이 개건됐다.

알렉산드르 샤리폴린 주 두마의원은 "2021년에는 경제 상황이 어려움에도 개발 과정은 유지됐다. 주내에 산업 시설들이 건설되고, 투자 유치가 이뤄지고, 마을과 도시를 정비했다. 주택 건설량은 역대 최고였다. 전례없이 수많은 주택가 마당들이 보수되었으며 지금도 이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공공사업에는 약 240억 루블리가 배정됐으며 이 중 11억 루블리가 편안한 도시 환경 조성에 배정됐다. 118곳의 주택가 마당과 38개 공공구역을 보수공사했고, 686 주택가의 파손 구역 보수공사가 이뤄졌다.

2021년 사할린주 주민의 교통서비스 분야에서는 항공, 항만, 철도에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이 명목으로 36억 루블리가 배정되었다. 사할린과 쿠릴 간 노선에 '아드미랄 네벨스키'선박과 '파벨 레오노브'선박이 운항했으며 샤흐초르스크 구역에는 새로운 공항 청사가 개설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누구나 질문하고 답을 얻을 수 있었으며, 회의 참가자들은 <2021년 사할린주 예산집행>에 대한 지역 법안 채택을 사할린 주두마에 요청했다. 이는 주 두마 의원들이 6월 30일에 심의할 예정이다.

새고려신문

2022년 하반기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2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581루블리 52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PP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사할린주, 투자자들에게 가장 유망한 5개 지역들 중 하나

지난해 사할린주는 국립 투자환경 조성 순위에서 8위에 올랐고, 현재는 5 위까지 올라섰다. 이러한 순위 결과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 경제포럼에서 발표됐다.

국립 투자환경 조성 순위는 지역 전문가들과 기업가들의 응답을 토대로 전략기 획청이 작성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지역들의 정부가 사업을 위한 양호한 조건에 따라 사업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뤄 냈으며, 얼마나 우수한 실례들이 생겨났 는지를 더욱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한다. 안드레이 벨로우소브 러시아 연방 제1부 총리는 "사할린주는 상위 5위 안에 들 만 하다. 실제로 모든 지표가 전국 평균 지표 보다 1.5배 -2배 우수하다."고 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아닌 기업인들이 우리 의 사업을 높이 평가해주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와 기업은 더욱 관계가 긴밀 하고, 공고해졌다. 대러제재가 시행되었 을 때 각 투자계획에 따라 은행가들, 건 설자들을 소집하여 모든 위험 요소들을 연구했다. 현재는 정기적으로 사업 상황 을 추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는 그 어느 투자계획도, 그 어떤 일자리 도 잃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할린주 정부가 기업과 정부 간 신 뢰감을 성공적으로 조성한 가운데 기업 인들이 참여하는 투자위원회가 운영되 고 있다. 투자위원회 회의에서는 사업가 들이 자유발언 방식으로 그들이 관심 갖 는 질문들을 제기한다. 회의 참가자들은 문제들을 진솔하게 논의하고, 사업에 유 익이 될 해결책을 함께 강구하며, 지역 의 사회 및 경제 분야의 발전을 위해 일

하고 있다. 지난해 사할린주는 사할린의 사업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조 치들을 실행했다. 지역 정부와 함께 검 찰, 기업 연맹들과의 협력 덕분에 행정 적 압박이 눈에 띄게 감소되었고, 해당 순위에서 사할린주는 49위에서 16위로 올랐다.

사할린주 정부의 성과 중 하나는 사 업을 위한 서비스 제공 기간에 대한 감 독이 조정된 것이다. 기업가들이 자원 공급 및 다른 기관들의 조력을 획득하 는 과정을 추적하게 하는 서비스가 가 동되고 있다.

사할린주는 다른 몇몇 지역들처럼 사할린주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인들 과 함께 첨단 작업표준을 도입했다. 이 표준은 투자지도, 세관신고서, 사업기획 실행을 현저하게 가속화시키는 여러 도 구들을 내포하고 있다.

사할린에는 기존 생산업의 발전과 신생산업 조성을 위해 더욱 유리한 조건 들을 제공할 3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획 실행에 착수했다. 이들 중 하나는 농산업, 식품 및 가공산업, 상업을 한 데 모으고, 둘째는 건설산업 분야의 사업들 을 모으려고 하며, 셋째는 석유·가스산 업단지 조성이다.

대러제재 시행 이후 일부 해외 기업 들은 탄화수소 채취 및 가공의 사할린 기 획에서 떠나게 되었다. 그 결과 국내 기업 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려 현재 10개 이 상의 러시아 대기업들이 투자계획에 참 여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실질적이 고 전망적인 기획의 일환으로 탄화수소 를 채취하는 회사들에게 서비스적 도움 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주정부가 전했다.

사할린 지역의 보건 발전을 위해 주 예산에서 50억 루블리 이상 추가 배정

2022년 기준에 승인된 의료 분 야 예산은 225억 루블리였는데 계 획된 지출 금액 변경에 따라 4분의 1이 증가할 전망이다. 의료지원 개 발 9개 방면이 지원을 받게 된다.

질병 예방과 건강한 생활방식 조성 사업은 더욱 주요하고, 추가 비용이 요구되는 항목이다. 이런 목 적으로 주 치과병원 및 진료상담센 터,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아동병원, 의료기관의 수리, 현대적 의료장비 확보와 1차 의료 현대화 프로그램 의 일환으로 재정적 여건을 위해 10 억 루블리 이상을 배정할 계획이다.

사할린주 두마 의원이자 사할 린주 1차 진료 병원 원장인 블라디 미르 로주메이코는 "필요한 의료장 비 목록 중에는 4호 보건소의 스펙 트럼 광간섭 단층촬영기, 아동 진 료소를 위한 뇌파 촬영기, 상담 및 진료센터에 위한 MRI 등이 있다.

특수 의료장비가 갖추어지면 주민 들에게 제공되는 의료 지원의 질도 개선될 거라 전망된다. 우리는 이 런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특화된 첨단 기술의 의료지원 개 발을 위해 6억 루블리가 배정됐다.

주지사의 지시로 사할린의 병 원들에서는 가장 현대적인 수술 치료법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 며, 러시아 우수 병원의 대표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긴밀 한 협력 덕에 사할린의 의료진들 은 안과에서 망막 수술의 방법을 익혔고, 근골격계 치료에서도 상 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사할린 과 쿠릴 주민들이 도심 지역 병원 에 가지 않고도 지방 의료기관들 에서도 흔하게 관절치환술이 가능 해졌다."고 말했다.

사할린주 보건부 장관 블라디 미르 쿠즈네초프는 "실제로 모든

방면에서 러시아 일류 진료소들과 협약이 돼 있다. 전문가들을 초빙 하고, 우리 의사들이 연수차 떠나 며, 화상 의료 상담 진행으로 접촉 이 이뤄지고 있다. 가장 어려운 치 료 상황일 경우 항상 연방 의료기 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그 덕에 매해 더 많은 주민들이 사할 린을 떠나지 않고도 첨단 의료기술 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 예산 개정안에는 모자보 건, 재활의학 개발, 완화 치료 제공, 의료 인력 확보, 정보기술 개발, 약 품 확보의 방면이 포함돼 있다.

주목할 것은 '러시아 통합'당의 주도로 국민 프로그램 실행의 일 환에서 지역 예산 추가자금의 대 부분이 사회적 분야에 재배정 되 어, 공직, 의료,주택 공공사업, 건설 에 종사자들의 임금도 상승할 것으 로 전망된다.

사할린주에 농업 생산량 증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 경제포럼에서 알레리 리마렌 코 주지사가 러시아 연방 드미트리 파드루체브 러시아 연 방 농축수산부 장관과 산업 발전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사할린주에 주요 투자계획 시행으로 젓 소 마릿수가 증가하여 2020년에 비해 우수 생산량이 두 배로 늘었고, 육류는 세배 이상 늘었으며, 주민들 의 감자 수요의 95%를 지역 농민들이 공급하고 있다.

2021년 주 정부는 사할린 농업의 개발과 지원을 위해 23억 4천만 루블리를 배정한 바 있다. 드미트리 파드루체브 농축수산부 장관은 사할린주 정부가 지 역 농업 생산자들에게 제공하는 지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2021년 사할린 지역 농산품 지수가 전년

대비 101.4%에 달하여 러시아 평균 지표보다 높았다 고 언급한 가운데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표명하고, 각 지역의 긍정적인 지표가 연방 전체로 긍정적인 지표를 형성한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농산업을 상당히 중요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앞으로 계속 주요 농 산품 품목 생산량을 증가시킬 것이며, 이를 위해 모든 게 가능하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사할린의 수산업 단지 전망에 대해서 도 논의했다. 현재 사할린 지역에서 수생생물 자원 채 취는 지난해 수치를 초과하고 있다.

이 모 저 모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시공원에서 아동 사반투이 축제 열려

6월 19일(일) 제11회 다민족 우정 기념일 사반투이가 도 시 공원에서 열렸다. 이에 유즈노사할린스크, 홈스크, 돌린스 크, 우글레고르스크 등, 사할린주 다른 지역들에서 아동 예술 단들이 참가했다.

행사는 민족 전통 의상을 입은 어린 예술가들의 축제 행 렬로 시작되었다. 이어 지역 창작 예술단들의 공연이 진행되 었다.

명절 오락 프로그램이 광범위하게 펼쳐진 가운데 민속 수 공예품, 타타르 문학과 그림 전시회가 열렸다.

누구나 활동교실에 참여할 수 있었고, 사할린주에 거주하 는 다민족들의 전통 음식들을 시식해볼 수 있었다. 이 행사 는 사할린주 타타르인 지역 민족·문화 자치단체가 주최했다.

명절 스포츠 행사가 '코스모스'경기장에서 열린 가운데 '파르후트지노브'기념 미니 축구대회가 열려 경기에 10개 팀 의 참가하였고, 청소년 참가자 수는 100명에 달했다. 이외에 도 시민들은 타타르의 전통 레슬링 '케레쉬' 시합에도 참가해 힘을 겨루어보기도 했다고 시청 측이 전했다.

В парк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тпраздновали детский Сабантуй

19 июня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в 11-й раз прошел мно го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аздник дружбы. Участниками стали дет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Холмского, Долинского, Углегорского и других районов Сахалинс кой области.

Событие началось с праздничного шествия юных артистов в национальных костюмах. Затем состоялся концерт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региона.

Развлек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праздника была об ширной: работали выставки народных ремесел, та тар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рисунков. Все желающие могли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мастер-классах, а также продегусти ровать национальные блюда диаспор, проживающих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рганизатор события — региональная националь но-культурная автономия тата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портивная часть праздника проходила на стади оне "Космос", там состоялся турнир по мини-футболу памяти И.П. Фархутдинова. В футбольных баталия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десять команд, а это почти сто юных спортсменов.

Кроме этого, горожане могли помериться силами в поединке татар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ы керэш, со общает мэрия города.

가 가 린 시 공 원 의 < 에 코 피 크 닌 > 에 사 할 린 주 민 들 초 대

6월 25(토)일 청년의 날을 맞아 가가린 문화·휴식 공원에 서 제1회 <에코피크닉> 가정 계몽행사가 진행된다. 이 행사에 사할린 국립대 대학생들이 주최자로 나섰다.

<에코피크닉>은 휴일 시공원의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한 곳에서 자연 속에 휴식을 취하며, 긴장을 풀도록 초대하고, 주 변 세상에 대해 흥미로운 많은 것을 알려줄 예정이다.

<에코피크닉>프로그램은 아동과 성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2개 부분으로 나뉘는데 상호작용 프로그램과 강연이다.

첫째 행사장 참가자들은 에코퀘스트(친환경 도전게임)에 참가하고, 폐지와 낡은 물건들을 이용해 직접 손으로 공작품 을 만들어보며, 다도와 요가에 참가할 수 있고, 건강에 좋은 사 탕류 만드는 법을 비롯해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다.

야외 강연장에서는 친환경 계몽 분야의 연방 전문가들이 모스크바의 환경보호의 유형과 '녹색 생활방식'으로의 전환, '자신의 일상적 생활습관을 통해 어떻게 주변 환경에 유익을 줄 수 있는지?', "바이오", '친환경', '유기화학'이란 '초록' 상표 들에 '속지' 않고 화장품, 생활 화학제품, 식품을 고르는 법', '어떻게 비닐봉투나 일회용 컵에서 오는 일회용의 해악을 다 회용의 유익함으로 교체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된다.

<에코피크닉>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소모된 배터리 수거 가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스왑-의류(의류 교환)'행사가 열 리는데 이는 합리적 소비 개념을 구체화하고, 옷장 속 일상 의 류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다.

모든 방문객이 자신의 옷장에서 옷 하나를 가져다 놓고 다 른 하나를 가져가는 것이다.

<에코피크닉> 행사장은 공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인 웨 르흐네에 호수 구역(간이 행사장)에서 펼쳐지며 시간은 12 시 - 18시까지다.

주최 측은 행사 참가자들에게 사전 등록을 요청하고 있다. 전화 문의는8(4242)452-310로.

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на "Экопикник" в парке Гагарина

В День молодежи 25 июня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куль туры и отдыха им. Юрия Гагарина пройдет первая семейная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ая акция "Экопикник". Органи заторами акции выступили студенты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Экопикник" — это приглашение отдохнуть, рассла биться, провести выходной день на свежем воздухе, на природе, в одном из красивейших мест городского парка, и заодно узнать много интересного об окружающем мире.

Программа "Экопикника" подойдет как для детей, так и для взрослых, и поделена на два блока: интерак тивный и лекционный. На первой площадке участники с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экоквестах, своими руками сотворить поделки из макулатуры и старых вещей, стать участниками чайной церемонии и йога-сессии, научиться делать полезные сладости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На лекториуме под открытым небом федеральные эксперты в области эко-просвещения расскажут об эко логичном стиле в Москве и переходе на "зеленый образ жизни", "Как через свои бытовые привычки приносить пользу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е?", "Как выбирать продукты, бытовую химию и косметику, не став жертвой "зеленой спекуляции" на значках "Био", "Эко" или "Органик", "Как заменить "одноразовый вред" от пакетов, стаканчиков на "многоразовую пользу"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8면에 계속)

6월 27일은 러시아 청년의 날

젊은이들의 청춘과 미래에 대해

젊음과 청춘은 모든 사람의 삶에서 멋진 시기일 뿐만 아니라 특별한 정신 상태이기도 한다. 이 시기는 도전과 발견의 시기이며 커다란 희망을 실현하는 시기다. 바로 오늘날의 학생들, 젊은 노동자·기업가·과학자들인 이들이 앞으로 국가의 발전의 길을 열어갈 것이다. 러시아에서 청년 기념일은 공식적으로 6월 27일에 기념하고 있다. 이날은 1958년부터 1993년까지 "소련 청년의 날"로 불렸고, 6월의 마지막 일요일에 기념했다.

현재 젊은 세대를 뒷받침하는 것은 사회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동안 국가차원에서 청년정책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젊은 가족을 지원하고 있고 청소년들을 위한 중등, 고등, 특수교육에 관한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나라에서 청소년 및 청년들을 위한 클럽과 센터가 많이 생겼다. 정부는 청년실업을 줄이는 데도 주의를 두고 있다.

현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번 미니 인터뷰를 통해 현대 청년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조사는 14세에서 30세 사이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견습기자들은 우선 현재 청소년들의 특징을 대해 물어보았다.

박미해 (15세, 학교 학생):

현대의 젊은이들은 독립적인 생활방식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부모들을 돕고, 어린아이들도 돌봅니다. 또한 정보와 다양한 정보출처를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기술에도 능통합니다. 젊은이들이 장점을 개발하고, 높은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꿈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젊은 세대가 강점을 개발하고, 단점을 해결해 가라는 조언하고 싶어요.

남다희 (23세, 법학과 학생):

요즘 시대 젊은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에게 집중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과는 다르게 본인의 삶을 더 중요시하며 힘들어도 무조건 참지 않습니다. 잠시 쉬어 가거나 다른 일을 선택하기도 하며 배움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한 번쯤 배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배움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라며 젊었을 때 많은 일들을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책에서 배우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색다른 삶에서 경험을 해보고 느끼는 것은 또 다른 귀중한 배움입니다.

김 스베틀라나 (27세, 음악가):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빨리 어른이 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때로는 어린 10대들이 흡연과 술 마시는 같은 것으로 어른들의 나쁜 행동을 모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되는 일이죠. 저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젊음을 즐기고 오늘을 위해 사십시오! 청춘은 하나이고 청춘의 그 어떤 순간들도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주 타티아나 (30세, 프로그래머, 번역가):

현대의 젊은 세대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관용적이고 개방적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다른'(장애나 특징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성과 거부감이 사회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또한 젊은 세대는 매우 진보적이고, 많은 취미를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것을 찾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공부합니다. 저는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견습기자들은 에너지가 넘치는 젊은이들의 장래 계획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마리아, (19세, 사할린국립대 학생):

저의 목적은 한국어와 관련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두 번 가보니 그 나라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졌어요. 통역사로 외교 협상에 참여하는 것이 꿈이에요.

예카테리나(22세, 사할린국립대학교 학생, 동양학 전공):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 경제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어요. 무엇보다 항상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 꿈은 충분한 돈을 벌기 위해 개인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예요.

유미(20살, 한국인 학생, 러시아어 전공):

저는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저는 다른 나라와 문화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요. 러시아어를 전공했지만 아직 러시아에 가보지 못했어요. 러시아에 가고 싶어요.

(사할린국립대 학생 위로비오와 다리아, 야키모바 엘리자베타 적었음)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소수 3 / 허은실

남자가 김치를 찢는다 가운데에다 젓가락을 푹 찢어 넣는다 여자가 콩자반을 하나 집어먹는다 고개를 숙이고 있다 남자가 젓가락을 최대한 벌린다 다 찢어지지 않는다 여자가 콩자반을 두개 집어먹는다 왼팔을 식탁 위에 얹고 고개를 끄고 있다

남자가 줄기 쪽에 다시 젓가락을 찢어넣는다 젓가락을 콤팩트처럼 벌린다 김치 양념이 여자의 밥그릇에 퐁다 여자가 쳐다보지 않는다 콩자반을 세 개 집어먹는다 남자가 김치를 들어올린다 떨어지지 않는 쪽이 팔려 올라온다 여자가 콩자반을 네 개 집어먹지 않는다 팔려 올라가는 김치를 잡는다 남자와 여자가 밥 먹는 것을 중단하고 말없이 김치를 찢는다

김치를 전부 찢어놓은 남자와 여자가 밥을 먹는다 말없이 계속 먹는다 여자는 찢어놓은 김치를 먹지 않는다 갇힌 장아찌를 집는다 두 장이 한꺼번에 집힌다 남자가 한 장을 퐁다 갇힌 자루에서 남자의 젓가락 끝과 여자의 젓가락 끝이 부딪친다 찢어주느라 찢어지지 못한 늦은 아침

늦은 냉장고가 으음 하고 돌아간다

"이렇게 말문을 열면 비위 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네요. 췌! (나즈막 하면서도 강렬한 목소리, 이를테면 비소스츠키를 닮은 목소리로) 저는요. 사실 못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멍 때리는 거는 대한민국 상위 0.001% 안에 들어갈 자신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고 아무렇지도 않게 실행하지 않아요. 요거는 잘하면 대한민국 1등도 넘볼 수 있는 위상을 지녔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얼굴도 실은 '동안'이라네요. 친구들이. 지금 제 얼굴이 글썽 대학 때 얼굴 바로 그대라면서. 칭찬이 이 정도면 뭐 장난 아닌 거죠. 배가 살짝(?) 나오고 있는데, 이걸 사실 너무 인간적인 매력인 거 같아요. 머리도 살짝 빠지고 있는데 약간 '주드 로' 스타일로 빠지더라고요. 터프하게 빠지는 3자 머리. 정말이지 치명적이지 않아요? 너무나너무너무 완벽하다 보니 이쯤 되면 좀(좀) 재수가 없죠?



이렇듯 아무것도 완벽한(?) 제가 못하는 게 하나 있음을 고백하려고요. 고해성사마저 할 줄 아는 중년이라니. 미쳤네 미쳤어, 정말 난리났네요, 난리, 아무튼. 그럼 뭘까요? 제가 못하는 그 무언가는. 여자 마음 훑치는 거? 땡! 물론 아닙니다. 가끔 오해하실 수 있는 사안이긴 한데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집사람 밖에 몰라요. 한 눈 파는 스타일이 전혀 아닌 거죠, 흠흠.

제가 못하는 건 '젓가락질'. 소근육이 덜 발달한 건지, 어렸을 적 '원기소'를 못 먹어서 그런 건지 이상할 정도로 젓가락질이 서툽니다. 긴 배추김치가 나오면 아내가 이걸 젓가락으로 찢을 때까지 그저 바라만 볼 뿐, 판정 부리는 식인 거죠. 폼이 어설퍼서요. 마음만 먹으면 젓가락도 공중으로 휘 날릴 수 있는 지경이거든요. 그래서인가? 저는 젓가락질 고수들을 만나면 그렇게도 부럽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젓가락질 고수들의 레벨을 정하면요. 콩자반을 아무렇지도 않게 쏙 집는다면 동메달. 멸치 볶음에 섞인 잣만 쏙 빼먹을 수 있다면 은메달인 거죠. 물론 제가 만든 레벨 도표입니다. 그렇다면 제 심장을 두근두근 뛰게 만드는 젓가락질의 끝판왕, 금메달 감은 어느 분이실까요. 예상하신 분도 더러 계시 텐데. 제 집사람이 바로 금메달 감이라면 금메달 감입니다. '묵'이나 '두부'도 원하는 크기로 푹 끊어, 그걸 또 세심한 힘 조절로 집어 올리더라고요. 어쩌면 그런 모습에 제가 반했을 지도.

허은실 시인의 이번 시는 얼핏 노련한 시나리오의 지문을 닮습니다. 미사여구 하나 없는 문장들. 김치를 찢고 콩자반을 하나 집어 드는 순간마저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미묘한 균열이 잡히는데요. 남자가 여자의 밥그릇에 김치 국물을 날리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이분 제가 볼 때 진짜 선수입. 흥미로운 건 여자 역시 결국 남자의 김치를 잡아주거든요. '무심코' 거드는 젓가락질이라니. 고수들은 사랑도 이렇게 하나 봐요. 젓가락질 하나로 헤어지지 않을 수 있단니. 지금이라도 신논현역 즈음 어딘가 '정약용 스타일 젓가락질 한 달 속성' 간판 걸린 학원 하나 있음 수강해야겠네요. 어쨌든 기회는 불현듯 찾아올 수도 있는 거니까, 뭘."

서울에서 허진원 작가

인천 모.이.소. 활동 소식

모이소 동아리 제공

코로나로 인해 프로그램 활동이 중단되었던 남동 사할린센터 사할린 경로당이 모처럼 사람들로 북적였다.

2022년 6월 11일(토)에 생활문화 동아리 '모.이.소.(대표: 이성숙)와 송도고 자율 동아리 '디아스포라(대표: 장현영 학생, 지도교사: 김익수)가 남동 사할린센터 사할린 경로당(회장: 문정현)에서 추천한 사할린 영구귀국 어르신 11분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살아 있는 역사인 어르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인천 지역 다양한 이웃, '사할린 동포'의 역사와 문화 알기 시민학습의 한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사할린에서 오신 우리 모두의 삶이 바로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알고자 작년부터 함께 활동한 모이소 회원에게 감사합니다. 특히, 올해는 앞으로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우리의 삶과 역사에 관심 두고 이렇게 찾아와 주며 더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잊혀질 역사가 이렇게 알려져 기억되고 전해지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지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문정현 남동 사할린센터 회장의 인사말에 송도고 자율 동아리 장현영 학생이 화답하였다.

"역사 교과서에 스치듯 한 줄로 사할린 강제 이주와 징용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뵈고, 말씀을 들으니 우리 민족과 역사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이.소.

모든 이웃을 소개합니다

모두가 이웃 되어 소통하기

모든 이웃의 소중한 인연

모든 이웃이 소통하는 곳

모.이.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다.

생활문화동아리 모이소(이하 모이소)는 청정프로젝트연구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강사와 마을 활동가의 글쓰기 모임이다. 모이소의 글쓰기는 개인에서 마을로, 또 마을에서 세대로 확장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모이소 회원들의 삶에서 빛나는 순간을 기록한 '나를 담다'를 시작으로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마을을 담다', 사할린 영구귀국 어르신과의 이야기를 담은 '똑똑, 만나고 싶었어요' 등의 책을 꾸준히 출간하고 있다.

모.이.소는 2022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시민복지 학습동아리 사업지원을 받아 작년에 이어 남동 사할린센터를 찾았다. 2021년 모이소는 남동 사할린센터를 통해 리정자, 황은순 두 어르신과의 대담을 책으로 담아 '똑똑, 만나고 싶었어요'를 출간하고 그 인연을 이어가고자 이번 활동을 기획하였다. 소중한 인연이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송도고 자율 동아리 '디아스포라'와 함께 연계하여 남동 사할린센터 어르신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이 만남 활동에 대한 기록을 출간하여 그 이야기를 더 많은 이웃과 나누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МИД проверяет достоверность гибели южнокорейцев в Украине

Сеул, 20 июня – ИА РУСКОР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Южной Кореи заявило, что проверяет достоверность данных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России, которые показали, что четверо южно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которые добровольно вызвались сражаться вместе с украинскими силами, были убиты.

«Нам известны данные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России», — сказа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 «Мы дали указание посольству Южной Кореи в России установить факты».

Ранее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России обнародовало данные об иностранных военных добровольцах в специальной операции в Украине.

В данных утверждается, что 13 южнокорейцев въехали в Украину, чтобы помочь украинцам, и что среди них четверо погибли во время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при этом восемь покинули Украину, а один все еще находится в стране. Другой информации, такой, как их имена, нет.

В апреле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заявило, что получило разведанные от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стран о том, что среди граждан Южной Кореи, участвовавших в качестве солдат-добровольцев в войне в Украине, были случаи смерти, и попыталось подтвердить их достоверность.

С середины февраля Южная Корея запретила своим гражданам въезжать в страну без разреше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скусство без границ: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художники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городе

Сеул, 19 июня – ИА РУСКОР

Работы около 20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художников представлены 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Цзинхан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городе Кванджу по 30 июня.

Выставка, организованная городом Кванджу и штаб-квартирой Центральной ассоциаци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и в Кванджу, также известной как Mintong, направлена на содействие межкорейскому культурному обмену.

«Мы не выставляем никаких произведений искусства, которые содержат пропаганду, а только произведения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такие как пейзажные картины и вышивки», — сказа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Цзинхан газете The Korea Herald.

По его словам, на выставке представлены работы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художников разных поколений, от молодых и начинающих художников до зрелых мастеров. Работы,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на выставке, были собраны Ким Сан Доком, председателем штаб-квартиры Mintong в Кванджу, и его знакомыми.

Выставка открыта с 9 утра до 6 вечера, кроме воскресенья. Вход свободный.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Тел.: 50-00-50;
43-31-31

27 июня – День молодежи

МОЛОДЕЖЬ О МОЛОДОСТИ И БУДУЩЕМ

Юность и молодость — это не только прекрасные периоды в жизни каждого человека, но ещё и особое состояние души. Это время дерзаний, поисков, открытий и реализации самых смелых надежд. Именно они, сегодняшние школьники, студенты, молодые рабочи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учёные, скоро будут определять пути развития государства. День молодёжи России официально отмечается 27 июня.

Свою историю праздник ведёт со времён существования СССР. До 1993 года он назывался «Днём советской молодёжи» и отмечался в последнее воскресенье июня, начиная с 1958 года.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забота о молодом поколении является важной частью соци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Разработана и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молодёжная политика. Государство поддерживает молодые семьи. Расширяются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получения среднего, высшего, специ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Широкое развитие получили юношеские и молодёжные клубы и центры.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снижению молодёжной безработицы.

Мы задали несколько вопросов современной молодёжи, чтобы иметь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 том, а какая же она, современная молодёжь. В опросе участвовали молодые люди в возрасте от 14 до 30 лет.

Пак Михе (15 лет, школьница, 1 гимназия имени А.С. Пушкина, 9 класс):

Современная молодёжь старается вести самостоятельный образ жизни, помогают родителям и заботятся о младших. Также они умеют работать с информацией и различными источниками информации, хорошо разбираются в технологиях. Я бы посоветовала им развивать свои сильные стороны, стремиться к высоким целям и верить в мечты.

Нам Дахи (23 года, студентка юридического факультета):

Молодые люди сосредоточены по большей части на себе. В отличие от прошлого, они больше ценят собственную личную жизнь и умеют отстаивать границы. Иногда делают перерыв или выбирают другую работу, но продолжают изучать новое. Я думаю, что нужно узнавать и учитывать опыт разных людей. Знания из книг важны, но опыт и чувства —

еще один ценный вид познания.

Ким Светлана (27 лет, музыкант):

Нынешняя молодёжь очень быстро взрослеет.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это хорошо. Но мне кажется, что не нужно стремиться побыстрее вырасти. Иногда подростки младшего возраста (школьники) копируют плохое поведение взрослых, например курение и употребление алкоголя.

Я хочу сказать всем молодым людям: Наслаждайтесь молодостью и живите сегодняшним днём! Молодость одна, и некоторые моменты больше никогда не повторятся.

Дю Татьяна (30 лет, программист и переводчик):

Современное молодое поколение стало более толерантным к разным людям. Это здорово, потому что из общества постепенно исчезает агрессия и неприятие к тем, кто отличается от нас. Также молодое поколение очень прогрессивно, у них много хобби, они ищут новое, изучают культуру других стран и языки. Я бы хотела посоветовать молодёжи продолжать изучать новое и стремиться развивать наше общество.

Ни для кого не секрет, что именно молодёжь переполняет амбиции, мечты и энергия для выполнения поставленных целей. Так каким же видят своё будущее молодые люди?

Мария (19 лет, студентка СахГУ):

«Моя цель — связать свою жизнь с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Побывав в Корее много раз, я поняла, что это страна, которую я хочу изучать. Мечтаю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переговорах в качестве переводчика»

Екатерина (22 года, студентка, будущий востоковед-кореевед):

Хочу успешно закончить университет и связать свою жизнь с экономикой. Считаю, что нужно постоянно развиваться. Я мечтаю открыть своё дело,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себе достойный заработок.

Юми (20 лет, студентка, изучающая русский язык в Корее):

Я живу ради того, чтобы успеть попробовать много вещей. Я хочу узнать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о других странах и культурах. Хочу скорее посетить Россию.

(Студентки СахГУ Дарья Воробьева, Елизавета Якимова)

60 лет Виктору Цою: чем запомнилась легенда русского рока

Легенда русского рока и лидер группы «Кино» Виктор Цой 21 июня мог бы отметить свой 60-летний юбилей. «МК в Питере» вспоминает жизненный и творческий путь музыканта, ставшего голосом целого поколения.

Виктор Цой родился в 1962 году в Ленинграде. С ранних лет он проявлял особый интерес к сцене. Музыкальная биография рок-звезды началась еще в школьные годы: уже тогда Цой стал бас-гитаристом группы «Палата №6», которую собрал вместе с товарищами. Особыми успехами в учебе мальчик при этом не славился.

После школы Цой поступил в Ленинградское художественное училище имени Серова, однако надолго там не задержался: на втором курсе будущего музыканта отчислили за неуспеваемость. Цою пришлось устроиться на завод, а позже пойти в ПТУ — там он получил специальность резчика по дереву. Впрочем, мечту о сцене Цой не забросил, и в 1970-80-х годах стал сближаться с ленинградскими рок-звездами.

В это время он и сам участвовал в рок-квартирниках. В 1981 году он впервые выступил в ленинградском кафе «Трюм». Эту дату принято связывать с образованием группы «Гарин и Гиперболоиды», в состав которой, кроме Цоя, вошли Алексей Рыбин и Олег Валинский. Последний вскоре ушел в армию — и группа превратилась в легендарную «Кино».

Пик популярности группы пришелся на 1986 год, когда советскому слушателю представили довольно дерзкие по тем временам композиции «Мама Анархия» и «Видели ночь». Альбомы расходились с бешеной скоростью. Уже спустя два года группа выпустила песню «Группа крови», которая по сей день остается одним из самых известных хитов «Кино». Тогда же слава о музыкантах пошла и за пределами родины. 1989 год ознаменовался для группы еще двумя легендарными произведениями — песнями «Звезда по имени Солнце» и «Хочу перемен!». К



этому времени Цой фактически обессмертил свое имя, став голосом эпохи.

Жизнь музыканта внезапно оборвалась 15 августа 1990 года. Цой разбился в автокатастрофе под Ригой, когда возвращался домой после отдыха в Прибалтике. Его машина протаранила автобус «Икарус», лидер «Кино» скончался на месте.

Позднее расследование привело к выводу, что Цой просто уснул за рулем от переутомления. Однако версия до сих пор вызывает множество споров. Поклонники певца не могли поверить в смерть своего кумира, а страна пережила настоящий шок, узнав о трагедии. По сей день стены домов в разных городах напоминают прохожим, что «Цой жив». Лидера «Кино» похоронили 19 августа 1990 года на Богуславском кладбище в Петербурге. В последний путь его проводили тысячи фанатов.

К 60-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Цоя в Петербурге открылась бесплатная выставка, посвященная его творчеству. Ранее «МК в Питере» рассказывал, что посетить экспозицию горожане смогут до 17 июля.

Источник: МК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24 июня в Сеуле пройдёт Форум мира

24 июня в Сеуле, в отеле "Лотте", состоится ежегодный Форум мира, на котором будут обсуждаться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вызовы, стоящие перед Корейским полуостровом в условиях быстро меняющейся глобальной обстановки в области безопасности. Тема мероприятия, организованного агентством Ёнхап и министерством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Соперничество между США, Китаем и Россией за гегемонию в эпоху президента Юн Сок Ёля». В нём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том числе,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К Хан Док Су, и эксперты по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С приветственной речью выступит министр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Квон Ён Сэ. Участники поделятся своими взглядами на будущее Инд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обсудят северокорейскую политику президента Юн Сок Ёля, пути возвращения Пхеньяна за стол переговоров и перспективы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ого альянса. Форум будет транслироваться в прямом эфире на веб-сайте <https://www.onekorea2022.co.kr>.

ВОЗ продолжает оказывать гуманитарную помощь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К концу прошлого года ВОЗ отправила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часть от запланированного объёма медикаментов.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радиостанция Свободная Азия со ссылкой на представителя ВОЗ в КНДР Эдвига Сальвадора. По его словам, в указанный период Северу были переданы лекарства от диабета, гипертонии и других неинфекцион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Он также заявил, что после этого ВОЗ неоднократно предлагала Пхеньяну организовать передачу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гуманитарных грузов и разместить в стране на постоянной основе сотрудников ВОЗ. Представитель организации также сообщил, что с начала июня по запросу Пхеньяна местным профильным учреждениям были предоставлены данные об особенностях коронавируса. Диалог по этому вопросу продолжается.

С южнокорейским спутником установлена двусторонняя связь

22 июня Центр управления полётами при Корейском институте аэрокосм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KARI) установил двустороннюю связь со спутником, который накануне был выведен на околоземную орбиту первой южнокорейской ракетой-носителем «Нурихо» (KSLV-II). По данным института и министерства науки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сеанс связи успешно осуществлён в 3 часа 1 минуту. Институт синхронизировал время со спутником, активизировав GPS-приёмник, который установлен на спутнике. Кроме того, на спутник направлены данные для корректировки его положения. Анализ полученной информации подтверждает положительное состояние спутника и корректность работы всех систем. В течение недели будет вестись работа по стабилизации положения спутника и проверке его состояния. С 29 июня начнётся поочерёдное отделение четырёх малых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спутников с интервалом в два дня. Весь процесс будет заснят на камеру, установленную на основном спутнике. В течение двух лет он будет совершать 14,6 оборота вокруг Земли в сутки. В задачи спутника входит проверка работоспособности термозлектрогенератора, антенны S-band и друг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разработанного на основе южнокорейских технологий.

Корейский фонд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бменов укрепляет отношения РК и США

Корейский фонд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бменов пригласил 40 экспертов из США для обсуждения вопросов укрепления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Сеулом и Вашингтоном. В период с 27 июня по 23 июля РК поочерёдно посетя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бюро азиат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NBR), Центра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CSIS), Университета Южной Калифорнии и других научных учреждений. Эксперты в сферах безопасности, торговли и геополитики посетят МИД,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министерство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торговли и энергетики, где обсудят ситуацию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вопросы укреплен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Корейский фонд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бменов проводит подоб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с 2015 года с целью укрепления отношений РК и США. К настоящему моменту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РК посетили 323 американских эксперта.

Усилится контроль за местами массового скопления людей

Карантинные власти РК усилят меры противоэпидемического контроля в отношении игровых площадок, мест укрытия от жары, культурных центров для пожилых людей. Как сообщили 21 июня в Центральном штабе противоэпидемических мер, это связано с повышением спроса на такие объекты в летний период, а также с учётом отмены мер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Власти будут уделять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выполнению таких базовых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х правил, как добровольное соблюдение дистанции между людьми, использование масок в помещениях, мытьё рук и т.д. При организации различных массов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ключая фестивали, власти намерены проводить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гигиенические проверки и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соблюдение противоэпидемических правил на местах. (RKI)

«Железная леди чучхе»: МИД КНДР впервые возглавила женщина

Чхве Сон Хи не лезет в карман за словом, умеет расшевелить американцев и обожает хороший кофе. Что стоит за назначением ключевого министра?

Официальные СМ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ообщили сенсационную новость о перестановках в высшем руководстве страны. Впервые в истории министром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НДР стала женщина — 57-летняя Чхве Сон Хи. Она не такая уж темная лошадка на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м поприще и давно известна зарубежным журналистам. Они окрестили Чхве «железной леди Страны чучхе» за жесткий стиль переговоров. Она считается одним из лучших в КНДР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США, а еще любит хороший кофе. Эксперты, опрошенные NEWS.ru, разошлись во мнении — одни усмотрели в ее возвышении чуть ли не готовность Пхеньяна пойти на диалог с Вашингтоном и Сеулом. По мнению других, это назначение, напротив,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б отсутствии у Ким Чен Ына планов смягчать курс.

Сирота пхеньянская

Вообще-то про официальных лиц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обычно известно не так много. Но все же Чхве Сон Хи достаточно неплохо знают российские и американские, а такж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дипломаты, которые не раз встречались с ней во время переговоров. Публике доступны и некоторые факты ее биографии.

Родилась Чхве в Пхеньяне 10 августа 1964 года. Она была сиротой, но потом ей сильно повезло. Девочку усыновил один из личных помощников вождя Ким Ир Сена Чхве Ён Рим, который потом стал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ом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Так Чхве попала в высшие сло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элиты, что предопределило ее будущее.

Она получила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ить образование за рубежом, причем не только в Китае, но и, по некоторым данным, в Австрии и на Мальте. Учтивая, что учеба в Европе была доступна только самой высшей прослойке руководства КНДР, можно понять, в каких кругах вращалась Чхве. Кстати, в Китае она училась в одно время с Тхэ Ён Хо, который был заместителем посла КНДР в Лондоне, а затем сбежал в Южную Корею и сейчас является депутатом парлам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от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Учеба за границей, а также усидчивость и упорство позволили девушке хорошо овладеть английским и китайским языками. Очевидцы утверждают, что на английском она говорит на уровне носителя, а по-китайски — как минимум «очень бегло и уверенно».

В 1988 году Чхве Сон Хи устроилась в МИД КНДР, который ей впоследствии суждено было возглавить. Довольно долго Чхве работала на официальных переговорах в качестве переводчика с английского. С 2003 по 2008 год она переводила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шестисторонние переговоры по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е КНДР. Уже тогда, по словам некоторых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ллег, Чхве была, скорее всего, «не просто переводчиком», но вела себя как полноправный член команды переговорщиков. Эти предположения подтвердились, когда на один из последних раундов Чхве Сон Хи прибыла уже в качестве главы делегации КНДР.

Чхве продолжила карьеру по «американской линии». В 2010 году она стала заместителем директора департамента Северной Америки МИД КНДР, а в 2016-м уже возглавила его. Западные партнеры гораздо лучше узнали ее с 2018 года, когда начались активные переговоры КНДР как с США, так и с Южной Кореей. В том же году Чхве была повышена до зам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Гроза переводчиков

С тех пор Чхве Сон Хи становится одной из главных фигур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дипломатии и принимает участие во всех значимых переговорах лидера КНДР Ким Чен Ына — с президентом США Дональдом Трампом в Сингапуре в июне 2018 года, в межкорейских саммитах 2018–2019 годов. Журналисты особенно запомнили ее по второму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у саммиту,

который состоялся в конце февраля 2019 года в Ханое. Чхве принимала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е участие в его подготовке, но встреча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была признана провальной. Дипломат созвала специальную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ю, обвинив в неудаче американскую сторону. По словам Чхве, «Соединенные Штаты упустили шанс, который больше не появится».

Несмотря на неудачу в Ханое, в апреле 2019 года Чхве еще выше поднялась по иерархической лестнице: она стала первым зам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вошла в Госсовет КНДР, а также была избрана депутатом парламента Северной Кореи — Верховн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Одновременно она вошла в комитет парламента п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В 2020 году мировые СМИ вновь заговорили о «железной леди Страны чучхе», когда от ее имени было опубликовано жесткое заявление с критикой американцев. Особенно досталось вице-президенту США Майку Пенсу, который предложил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ливийский сценарий» — ядерное разоружение в обмен на отмену санкций. Чхве Сон Хи публично назвала вице-президента США «политическим дураком».

Вообще западные партнеры довольно быстро убедились в жестком характере Чхве Сон Хи. Американцы вспоминали, как в 2013 году согласовывали детали поездки в Пхеньян экс-звезды Национальной баскетбольной ассоциации (НБА) Денниса Родмана. Тогда Чхве прямо заявила, что «не в восторге от перспектив приезда такой личности, но выполнит все положенные обязательства».

Когда же во время рабочих переговоров согласовывались детали второго саммита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и Ким Чен Ына, Чхве резко оборвала переводчика американской стороны, обвинив его в некачественном переводе. После того как американцы не смогли найти ему замену, Чхве и вовсе прервала консультации.

Насколько можно судить, американцы ее уважали.

Во время совместных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дискуссий, где у имел возможность участвовать, было заметно, что американцы относились к ней с большим уважением, беседовали с ней на равных. Это контрастировало с той манерой, в которой американцы говорили с южнокорейцами, допуская к последним снисходительное отношение, порой разговаривая с ними как феодал с вассалом, — поделился с NEWS.ru осведомленный источник в российских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кругах.

В колхоз на поруки

Между тем над политическим небосклоном Чхве не всегда сияла звезда удачи. С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ы 2021 года она была несколько понижена в политической иерархии КНДР. В частности, ее вывели из Госсовета и прочих влиятельных структур, хотя она и продолжала сохранять должность первого зам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Впрочем, это скорее отражало не столько опалу конкретно Чхве, сколько понижение значимости американской и вообще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й тематики для Пхеньяна. Стало ясно, что в обозримом будущем переговоры КНДР с США не предвидятся.

Между тем некоторые СМИ сообщали, что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2020 года Чхве «в целях идеологического перевоспитания» на три месяца отправили на работу в один из колхозов. Это считается сравнительно мягким наказанием для провинившихся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х чиновников. Якобы после «вахты на полях» она вернулась к исполнению своих обязанностей. Впрочем, разговоры о «работе в колхозе» так и остались слухами, которые сложно проверить.

Чхве Сон Хи очень хорошо известна российским дипломатам, которые часто встречались с ней в КНДР, в РФ, а также в третьих странах. Чхве неоднократно посещала нашу страну. К примеру, в 2017 году она представляла КНДР на Москов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 нераспространению, когда ей не давали прохода иностранные журналисты. (Окончание на 7-ой странице)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2022 г. — **581 руб. 52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усти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дал старт строительству Сахалинского нефтегазового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парка

Мероприятие, посвященное знаковому дл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обытию, состоялось в северной част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лавный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директор компании «Сахалин Энерджи» Роман Дашков,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и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Айлэнд Джeneral Сервисес» Сергей Попсуев вместе нажали установленную на строительной площадке кнопку. Заработала техника, началась заливка первого бетона в основание трех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лабораторных зданий будущ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нефтегазового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парк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идет масштабная добыча и переработка углеводородов. Парк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берет компании, оказывающие сервисные услуги добывающим предприятиям. Здесь будут построены здания для размещения офисов и лабораторий,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базы и склады общей площадью около 89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В парке резиденты смогут арендовать площадки, обеспеченные всем необходимым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производства, а также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льготами, предусмотренными в рамках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Южная».

– Сегодня мы даем старт строительству Сахалинского нефтегазового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парка. Это знаковое событие для региона. Создание столь важной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й площадки даст новый импульс развитию российских нефтесервисов, что важно для стабильной работы нефтегазовой отрасли в целом. Сегодня большая часть сервисных работ для нефтегазовой отрасли выполняется за пределами области. Благодаря запуску парка мы сможем увеличить долю локализации мощностей по обслуживанию шельфовых и других проектов по добыче углеводородов в несколько раз. Это особенно актуально сейчас, в условиях западных санкций. Крайне важно, что вместе с производствами появятся около тысячи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Занять их должны ж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этому мы уделяем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развитию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повышению квалификации специалистов. Парк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на экономику региона, на благо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И очень символично, что мы закладываем его в год 75-ле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Заказчики сервисных услуг и подрядчики, работа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парка, смогут более эффективно организовать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 Я помню, как мы рассматривали концепцию нефтегазового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парка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зад и подписали соглашение с первыми резидентами на форуме «Нефть и газ Сахалина». Сейчас это соглашение реализуется на практике. Много лет компания следует принципам ESG. У нас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ое, безопасное и ответствен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Мы в полной мере выполняем обязательства перед акционерами, Российской стороной 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ью. СИП – неотъемлемая и важная часть нашей корпоратив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 отметил главный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директор компании «Сахалин Энерджи» Роман Дашков.

Сегодня 17 компаний являются резидентами Сахалинского нефтегазового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парка. Недавно о намерении получить этот статус заявляла компания «ФракДжет-Волга» – один из лидеров рынка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х нефтесервисных услуг.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соглашение было подписано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назад на полях Петербург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 Резиденты будут предоставлять логистические и it-услуги, производить растворы для бурения скважин и технические газы, ремонтировать и обслуживать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а также обучать специалистов. Локализация нефтегазовых сервисов на Сахалине, появление в регионе новых современных производств повлечет за собой создание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в других отраслях – от транспорта 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жилья до торговли. А это н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островных деловых кругов,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 отметил Дмитрий Вдовин,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директор «Корпорации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существляющий управление проектом.

Как отмети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Корпорации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Николай Запругаев, создание Сахалинского нефтегазового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парка позволит реализовывать как уже действующие нефтегазовые проекты, так и начинать новые.

– Импортзамещающий проект, реализуемый при дей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е государства, позволит добывать на острове нефть и газ в условиях существующих внешних ограничений. Поможет нивелировать риски несвоевременного и некачественн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и ремонта оборудования добывающих компаний. Вместе с развитием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парка, ростом количества его резидентов и развитием кооперационных связей между ними, на Сахалине появятся перспективы для старта новых добычных проектов, которые будут двигать вперед экономику и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ую сферу все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а также обеспечивать работой людей, привлекать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 сказал Николай Запругаев.

Завершени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первой очереди нефтегазового парка намечено на четвертый квартал 2023 года. Проводит работы резидент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ТОР) «Южная», «Сахалинский нефтегазовый индустриальный парк» (ООО «САХНИП»).

По данным КРДВ, на ТОР «Южная» реализуются 10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Пять из них инвесторы успешно реализовали, вложили 8,7 млрд рублей и создали 911 рабочих мест.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создано 22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Резиденты реализуют 586 проектов.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экономику макрорегиона вложено 1,7 трлн рублей, создано 52,9 тыс. рабочих мест, инвесторы реализовали 178 проектов.

С начала пожароопасного сезона на островах провели 250 проверок и 700 патрулирований лесного фонда

По фактам нарушений, выявленных сотрудникам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лесного и охотничьего хозяйства, назначено 10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наказаний и вынесено 7 предупреждений. Такая информация была озвучена в ходе рабочего совещания в област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которое прове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 начала год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роизошло 12 лесных пожаров. При этом только один из них оказался крупным – в Охинском районе.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о факту его возникновения 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в отношении должностных лиц организации проверки.

Сейчас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действует один лесной пожар – огонь был локализован в Охинском районе на площади 30 гектаров. На завтра из-за сухой и жаркой погоды в Тымовском и Смирныховском городских округах прогнозируют высокий класс пожарной опасности.

– Ситуацию в эти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следует держать на особом контроле. На любой риск необходимо реагировать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 у нас есть для этого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силы и средства, – подчеркну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помним, в этом году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к пожароопасному сезону провели раньше обычных сроков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Мониторинг лесопожарной обстановки в этом году, как и раньше, будет космическим, наземным и авиационным. Утверждены пять маршрутов авиационного патрулирования общей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2434 км и 53 маршрута наземного патрулирования – 5157 км.

Космический мониторинг лесопожарной обстановки в круглосуточном режиме проводят работники региональной диспетчерской службы Сахалинской авиабазы. Применяется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система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мониторинга Федер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лесного хозяйства. На земле ситуацию контролируют сотрудники лесничеств и лесопожарных формирований.

Патрулируют леса с воздуха в этом году четыре воздушных судна. Контракты на осуществление лесоавиационных работ в 2022 году заключены на 450 летных часов. Это на 50 часов больше, чем в 2021 году.

Численность лесных пожарных увеличена на 29 человек, группировка парашютно-десантной пожарной службы Сахалинской авиабазы – на 9 человек. Сегодня в личный состав лесопожарных формирований входят 184 человека.

Оборудование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областных автономных учреждений составляет 185 единиц лесопожарной техники.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Экология» планируется докупить ещё грузовую машину и три прицепа модуля с водоподающи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Вместе с тем в этом году в регионе проведут большую работу по лесовосстановлению. Мероприятия должны охватить почти 3 тысячи 200 гектаров.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одписала ряд соглашений с общим объемом инвестиций более 47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Итоги Петербург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подвели 20 июня на рабочем совещани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егиона, которое прове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Форум стал очень насыщенным для области. В рамках мероприятия были подведены итоги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рейтинга среди всех российских регионов. Мы вошли в пятёрку сильнейших, наряду с Москвой, Тульской и Московской областями, Татарстаном. Это большой успех. Но важно не просто быть инвестиционно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м регионом, но и реализовать задуманные планы, поэтому движемся, не снижая темп,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ак рас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тон Зайцев, на полях форум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одписала 11 соглашений, 7 из которых предполагают реализацию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общий объем инвестиций составит свыше 47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проект предполагает возведение на 120,5 гектара почти 70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жилья. Стройка будет вестись в два этапа. На первом этапе «Самолет» планирует построить более 43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жилья средней этажности. На втором – свыше 250 тысяч.

Соглашений с группой компаний «Самолет» – одним из лидеров по объемам строительства жилья в стране – предполагает возведение на 120 гектарах в Корсакове почти 70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жилья. Стройка будет вестись в два этапа. На первом этапе «Самолет»

планирует построить более 43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жилья средней этажности. На втором – свыше 250 тысяч. Первые дома планируют сдать уже в 2024 году.

В рамках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нефтегазового парка подписано соглашение с компанией «ФракДжет-Волга», которая будет производить и обслуживать нефтегазов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а также наладит производство азота. Объем инвестиций превысит 1,5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проект намерены реализовать в 2024 году.

4 соглашения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одписала с Газпромбанком. Учреждение подключится к работе по созданию в регионе комплексной системы обращения с отходами. Стороны совместно реализуют проект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десяти коммунальных объектов.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планируется создание ряда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ых объектов. Расположенные на севере Сахалина смогут принять 10 тысяч тонн твердых коммунальных отходов в год. В центре острова – 44 тысячи тонн. Мощность объектов на юге Сахалина составит 180 тысяч тонн в год. Сумма предполагаемых инвестиций по соглашению – порядка 7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Ввод объектов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запланирован на 2025 год.

Также Газпромбанк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финансировани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поликлиник – в Холмске, Углегорск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его планировочных районах Дальнее и Хомутово. Общая площадь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ых сооружений по проекту может составить порядка 4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В сутки они смогут принять 14 тысяч посетителей. Капитальные затраты по проекту оцениваются в 7,5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Соглашение с Газпромбанком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средней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школы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предполагает возведение нового учебного заведения на 24 тысячи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Оно сможет принять 1260 школьников.

Договорились и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создании кампус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что «Кампус СахалинТех» будет включать учеб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корпус, научно-лабораторный блок, библиотеку, конгресс-холл и общественно-деловые пространства с общей площадью около 5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Общежития студенческого городка общей площадью 39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позволят с комфортом разместить 1 800 студентов. Капитальные затраты по проекту составят 19,3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Уже сейчас готовится к подаче заявка на федеральное субсидирование реализации этого проекта.

Еще одно соглашение, подписанное с главой ПАО «Газпром» Алексеем Миллером, предполагает возведени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детского сада и школы.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дополнением к документу, вместо ранее запланированного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ого спортивно-досугового центра будет построено два самостоятельных объекта – дворец водных видов спорта и физкультурно-оздоровительный комплекс с универсальным спортивным залом. Оба комплекса, а также ледовая арена, которая входит в состав проекта, уже проектирую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о «Газпром» построит для жител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ую школу и детский сад. Как ранее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 окончани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объекты будут переданы в региональную и муниципальную собственность. Юные жители города будут посещать их на общих основаниях.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стет производство продукци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тоги развития отрасл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бсудил с министром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митрием Патрушевым. Встреча состоялась в ходе Петербург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лагодаря реализации крупных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выросло поголовье молочных коров.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20 годом в два раза увеличилось производство молока. Более чем в три раза – мяса. Местные аграрии на 95 процентов обеспечивают потреб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в картофеле.

В 2021 году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направили на развитие и поддержку островного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2,34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Дмитрий Патрушев позитивно оценил помощь, которую островные власти оказывают местным сельхозпроизводителям. Министр отметил, что индекс производства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продукции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в 2021 году составил 101,4 процента по отношению к предыдущему году и превысил среднероссийский показатель. Глава федерального ведомства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что эта тенденция сохранится и в дальнейшем.

– Из положительных индексов каждого региона складывается положительный индекс в целом по Федерации, – отметил Дмитрий Патрушев.

Вместе с тем, участники встречи отметили, что отрасль имеет серьезный потенциал для роста.

– Мы продолжим увеличивать объемы производства основных видов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продукции. Для этого есть все возможности,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Участники встречи также обсудили перспективы островного рыб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Сегодня темпы добычи водных биологических ресурсов на островах превышают прошлогодние показател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Железная леди Чухче»: МИД КНДР впервые возглавила женщина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5-ой странице)

Но дама-кремль не рассказала ничего помимо того, что озвучила в своем докладе на мероприятии. Также Чхве сопроводила Ким Чен Ына в его знаменитой поездке во Владивосток на бронепоезде в апреле 2019 года.

Не такая уж и «железная»?

В человеческом плане о Чхве известно не так много. Все, кто с ней общался, отмечают ее великолепные деловые качества и признают одним из лучш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КНДР по США.

Это высококлассный, очень хорошо подготовленный для этой должности карьерный дипломат, пользующийся доверием страны, — так охарактеризовал Чхве один из наших источников на условиях анонимности. — Она занималась не только отношениями с США, но и в целом проблемати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Это проявилось, в частности,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где она присутствовала на беседе Ким Чен Ына с президентом РФ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Другой собеседник NEWS.ru отметил ее приятную манеру общения.

Мне сложно сказать, почему ее называют «железной леди». Понятно, что она,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отстаивала линию, которую определило высшее руководство КНДР. Возможно, жесткий подход с США был линией Пхеньяна на тот момент, и она как переговорщик была обязана ее доводить. В этой ситуации уже нет места для личных предпочтений. Однако мне она запомнилась как человек, приятный в общении. Хотя в целом Чхве достаточно сдержанная, спокойная, и по ее лицу непросто определить, какие у нее эмоции, но в то же время она могла и посмеяться, пошутить, рассказать какую-либо веселую историю, если обстановка к этому располагала. Всегда до конца выслушивала собеседника, давала ему всё высказать, а только потом говорила сама, — рассказал собеседник NEWS.ru.

Источник в российских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кругах отметил ее влияние и человеческие качества.

Это женщина, уверенная в себе, чувствующая и понимающая, что пользуется поддержкой руководства КНДР, но при этом имеет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нимать собственные решения. Она обладает определенной свободой маневра, хорошо и ясно излагает свои мысли, иногда в достаточно категоричной форме и довольно жестко. При этом Чхве не стремится оскорбить собеседника, — отметил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источник NEWS.ru. — В неофициальной обстановке она демонстрирует отличное чувство юмора и человеческое отношение к тем, кто к ней относится с уважением и с кем у нее сложились хорошие отношения. Это дружелюбие искреннее и не показное.

Россиянин также отметил ее хорошее понимание США и Запада в целом.

Чхве Сон Хи — очень знающая, пожалуй, лучше всех 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элите понимающая Запад, а в особенности американскую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ь. При этом она умеет маневрировать внутри своей страны так, чтобы не вызывать раздражение своего начальства своими знаниями, — отметил российский дипломат.

Про личную жизнь, привычки и предпочтения Чхве Сон Хи не удалось что-либо узнать. Правда, один из общавшихся с ней дипломатов отметил, что она «очень любит хороший кофе».

Четыре прекрасные дамы Кима

Чхве Сон Хи входит в элитную группу «четырех очень влиятельных женщин Ким Чен Ына», которые с его приходом к власти стали играть заметную роль в политике и обществе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омимо Чхве к этой группе можно отнести младшую сестру вожд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им Ё Чжон и бывшую солистку местного музыкального ансамбля Хён Сон Воль. Если Ким занимает ответственные посты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и ЦК партии, то Хён, насколько можно судить, является кем-то вроде главы секретариата вождя.

Особняком в этой группе стоит супруга Ким Чен Ына Ли Соль Чжу. Хотя первая лед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не претендует на влиятельные должности в руководстве, но регулярно появляется с мужем на официаль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и даже на беседах с иностранными делегациями, не стесняясь на людях брать его под руку. Это сильно контрастирует с поведением отца и деда Ким Чен Ына — Ким Ир Сена и Ким Чен Ира, которые своих жен не 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Эксперты предполагают, что группа «влиятельных дам Ким Чен Ына» могла недавно пополниться пятым членом. На одном из последних мероприятий рядом с вождем неотлучно находилась неизвестная зарубежным экспертам дама средних лет, которая выполняла роль личного секретаря Кима. Но о ней не известно практически ничего, даже имя.

Пхеньян на распутье

Итак,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назад «железная леди Страны чухче» возглавила МИД КНДР, а также стала кандидатом в члены Политбюро ЦК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что спровоцировало самые разные предположения. К чему готовится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Звучат самые разные версии — от грядущего обострения обстановк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до разворота в сторону диалога с соседями и Вашингтоном.

Известный американский «ястреб» Джон Болтон, который при Дональде Трампе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занимал пост советника президента США по вопросам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с пессимизмом воспринял повышение Чхве.

Назначение Чхве Сон Хи министром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означает, что Пхеньян полностью отказался от идеи решить ядерную проблему КНДР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 путем, — уверен Болтон.

С ним согласен и бывший специалист Госдепартамента США по вопросам не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Марк Фитцпатрик, который несколько раз встречался с Чхве на переговорах. Он не увидел в этой «железной леди» склонностей к поиску компромиссов. Американец называет ее очень жестким переговорщиком «без каких-либо человеческих черт».

Некоторы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эксперты также считают, что Чхве будет реализовывать линию Пхеньяна, которая стремится отвечать на давление еще большим давлением, на силу — еще большей силой.

Правда, хватает и других точек зрения, в том числе в США. Там обращают внимание, что Чхве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лучших экспертов КНДР по Соединенным Штатам, а потому ее назначение может быть признаком готовности к диалогу с Вашингтоном.

Так считает и южнокорейский депутат Тхэ Ён Хо — тот самый перебежчик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оторый в конце 1970-х учился вместе с Чхве в Китае.

Чхве Сон Хи имеет свои каналы прямого общения с Ким Чен Ыном и находится в том положении, когда может напрямую лично влиять на процесс принятия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шений и выработку стратегии переговоров, — считает старый знакомый Чхве. — Высока вероятность, что нас ждет повторение ситуации 2017–2018 годов, когда КНДР сначала повысит уровень напряженности, пойдет на некоторые провокации, а затем, доведя накал до предела, сделает резкий разворот, предложит возобновить диалог. Вполне возможно, что для реализации этой линии Чхве Сон Хи и назначена главой МИД КНДР. А потому нам стоит уже сейчас готовиться к возможным переговорам с Пхеньяном.

По прогнозам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депутата, разворот Пхеньяна в сторону переговорного процесса может начаться с 2023 года.

Но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ъединения Южной Кореи предпочитают не торопиться с выводами.

Исходя из нашего опыта, мы не готовы утверждать, что назначением кого-либо на конкретный пост Пхеньян дает сигнал другим странам о своих намерениях в сфере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 поделился на условиях анонимности источник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 мнению чиновника, Чхве будет реализовывать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волю и планы Ким Чен Ына, а ее личные качества вряд ли способны всерьез повлиять на ситуацию.

Источник в российских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кругах предложил подождать развития событий и только после этого строить прогнозы.

Сейчас не приходится ожидать от Чхве Сон Хи активности в отношениях с США. Надо вообще посмотреть, какие конкретно функции она получит в качестве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поскольку эта должность в КНДР скорее протокольная. Вместе с тем я не думаю, что она удовлетворится символической ролью, — заключил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собеседник NEWS.ru.

Олег Кирьянов
(Источник: NEWS.ru)

[우리말로 깨닫다]

한글뒤풀이의 치유

한글뒤풀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한글의 감정>이라는 책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한글을 이용해서 노래를 부르는 민요입니다. '가나다라마바사아 잇었구나. 기억 니은 디글 리 을'로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노래가사대로 우리가 잇고 사는 노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노래는 3년 전에 제가 사물놀이와 민요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꼭 배우고 싶었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잘 배워서 한국어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에게 들려 드리고 가르쳐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민요를 배우는 저에게 좋은 동기가 되었습니다.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3년이 지났지만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물론 초조하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배우면서 누리는 기쁨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배웠습니다만 아직 남들에게 들려주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간단하게 공연 모습을 영상으로 찍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 시대여서 대면으로 공연하기가 어려워져 요즘에는 주로 영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곧 직접 만나서 공연을 할 수 있겠지요.

저희 모임은 '희망세상'이라고 하고 공연은 '국악치유공연'이라고도 합니다. '팡팡통통'이라는 검색어로 찾으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글뒤풀이 외에도 판굿, 사물놀이, 북, 춤, 민요 등 다양한 작품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의 조금 부족한 공연을 보고 많은 분이 마음에 위안을 받고 기쁘기 바랍니다. 저희도 공연을 하면서 치유를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영상을 올린 후 전체 한글뒤풀이를 알고 싶다는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한글학교의 아이들,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글뒤풀이를 모두 부르면 7분 정도 됩니다. 공연으로 하기에는 좀 긴 듯하여 지난 영상에는 노래를 줄여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한글뒤풀이를 배우고 싶은 분을 위해 전곡을 올리기로 하고 다시 연습하기로 했습니다.

공연을 준비하면서 이번에는 원래 가사의 노래도 부르고, 이왕이면 민요 가사를 요즘에 맞게 바꾼 노래도 불러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가사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의견을 듣기 위해서 가까운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원래 가사를 보면 사랑이야기로 애절합니다. 몇 부분만 보자면 '바바바바 밥을 먹다 돌아다보니 입이 없어서 못 먹겠구나/보보부부 보고 지고 보고 지고 한양 낭군이 보고만 지고처럼 옛 사랑이야기입니다. 또한 '가 가져겨 가이 없는 이내 몸이 그지 없어도 되었구나'처럼 요즘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가나다라로 시작하는 단어를 몰으니 '가을, 나비, 다람쥐, 라라라, 마을, 바람, 사랑, 아이' 등 아이들이 부를 것을 생각해봤더니 예쁜 단어가 잔뜩 나왔습니다. 대학생 학습자에게는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담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가나다라마바사아'로 각 가사를 시작하니 삶이 담깁니다. 바꾼 가사로 노래도 불러봅니다. 아직 어려움에 웃음도 나옵니다. 그렇게 웃으며 밝게 노래를 부릅니다. 어쩌면 혼자 부르면 눈물이 날 수도 있겠네요. '보고 지고 보고 지고 엄마야빠 보고 지고'로 바꾼 가사가 누구에게는 그리움이 될 겁니다.

한글뒤풀이가 그대로 저에게 치유가 됩니다. 한글 노래를 가르칠 생각에 치유가 되고 배우는 모습에 치유가 됩니다. 학생들이 만든 자신의 삶을 담은 가사에 또한 치유가 됩니다. 이게 바로 민요의 힘입니다.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민요와 한글이 우리 마음을 스르르 풀어줍니다. 한글뒤풀이의 아름다운 달라짐입니다. 새로 올릴 한글뒤풀이 공연을 기대해 주세요.

(출처: 재외동포신문)

외교부,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출범식 개최

최종 선발된 현장실습원 30명, 6개월간 30개 공관에 파견돼 재외공관 공공외교 사업에 참여

외교부는 6월 22일 외교부 1층 국민의교센터에서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출범식 및 홈커밍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최종 선발된 현장실습원 30명은 6개월간 30개 공관에 파견돼 재외공관 공공외교 사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국제 역량을 키우고, 해외 진출 및 진로 모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이날 행사는 ▲경중호 공공문화외교국장 축사 ▲공공외교 활동 소개 ▲해외 체류 시 유의 사항 및 여행자 보험 등 교육 ▲파

견자 간의 경험 공유 및 네트워크 형성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유럽 지역 파견 예정인 한 현장실습원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제약이 생겨 매우 아쉬웠지만, 모두가 참여한 만큼 더 활발하고 흥미로운 공공외교 행사들이 진행될 것 같다"며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공공외교를 펼치고 오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홈커밍데이를 맞아 행사에 참석한 기존 파견자들은 현장실습원으로서의 생생한 경

험을 들려줬다. 2016년 파견자는 "세계 정치 중심인 워싱턴 D.C.에서 파견 생활을 하며 글로벌 기업에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가 많은 커리어를 시작하고 싶은 동기부여가 됐고, 현재 해외 영업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실습 기간 배운 업무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외교부는 "더 많은 우리 청년들이 공공외교 현장을 체험하고, 국제업무역량을 키워 해외 진출 및 진로 모색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На протяжении дня на "Экопикнике"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централизованный сбор использованных батареек, а также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площадка "СВОП-одежда", которая воплощает идею разумного потребления и направлена на минимизацию выброса вещей повседневного гардероба. Каждый посетитель может оставить одну вещь из своего гардероба и получить одну взамен.

Площадка "Экопикника" расположится в живописном месте парка, в районе озера Верхнее (ориентир — белый шатер). Время работы площадки — с 12:00 до 18:00.

Организаторы акции просят пройти предварительную регистрацию. Справки по телефону: 8(4242)452-310, сообщает СахГУ.

<하루가 시작되는 이곳>, 러시아 관광청이 сахалин의 새로운 관광 코스 발표

러시아 관광청이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제포럼에서 сахалин의 새로운 관광 코스를 발표했다. 이 관광 코스에는 익스트림 등산과 해물탕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기획은 상징적으로 <하루가 시작되는 이곳>이라고 명명했다.

"сахалин의 관광 코스가 국립 관광기획들 1위 목록에 들어갔다. 이 목록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사마라주, 쿠즈바스, 시비리 등의 여행 코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러시아 정부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전했다.

말하자면,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에서 방문객들을 돌린스크, 브즈모리예, 웨스트초카, 오호초코예로 인도하고, 향토 박물관과 '고르니 워즈두흐', 신토 신전과 웰리칸 꽃과 프찌치 꽃을 방문하며, 라구쉬카 산에 등

반하고, 바다의 진미와 야생 나물로 만든 сахалин의 요리를 맛보도록 하는 것이다. 여행 중 많이 걸어야 하고, 항상 날씨가 맑지만은 않으니 편한 신발과 옷이 필요하다.

여행 코스는 <여행자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러시아 관광청 자리나 도구조와 청장이 확신하는 가운데 2024년까지는 모든 연방 지역에 국립 관광코스망이 조성될 전망이다이라고 밝혔다.

Здесь начинается день:

Ростуризм презентовал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новый туристический маршрут на Сахалине

Ростуризм представил на Петербургск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форуме новый сахалинский туристический маршрут. В него вошли экстремальные походы и блюдо хемультан, а весь проект назвали символично - «Здесь начинается день».

- Сахалинский маршрут вошёл в число первых национальных туристических проектов. В списке также значатся путешествия по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у, Самарской области, Кузбассу и Сибири, - сообщает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 в своем Telegram-канале.

Если подробнее, то гостей встретя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везут по Долинску, Взморью, Восточке и Охотскому. Они посетят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Горный воздух», развалины синтоистского храма, мыс Великан, Птичий, поднимутся на гору Лягушка и отведают сахалинские блюда из морских деликатесов и дикоросов. Двигаться пешком придется много, и не везде погода будет безоблачной: нужна удобная обувь и одежда.

При этом маршрут будет «соответствовать ожиданиям туристов», в этом завери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Ростуризма Зарина Догузова. Также она сообщила, что сеть национальных туристических маршрутов появится во всех федеральных округах к 2024 году.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시에 계시는 권견자 선생님께 드리는 축하문

Дорогой наш человек! Любимая бабушка и мама! Поздравляем с юбилеем и желаем, чтобы вы всегда были бодры, здоровы и веселы!



Пусть в Вашей жизни происходят только радостные события, а каждое мгновение дарит добро и положительные эмоции! Спасибо за заботу и поддержку!

С любовью, дочери, зятя и внуки.

새고려신문 애독자이신 권견자 선생님, 80회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장기간 학교학생 한국어교육에 전념 하시느라 수고하신 선생님께 건강과 만복을 기원하고 인생을 즐기시며 손자녀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새고려신문사 사원 일동

САХКОМ ЕДА

Ваш сервис для заказа вкусной еды

Наши преимущества:

- У нас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 Понравившийся заказ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91 ЗАВЕДЕНИЕ



684 200 ЗАКАЗОВ



105 8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28 075 ОТЗЫВО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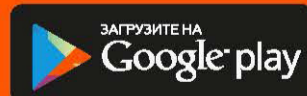
Вы можете заказывать



на сайте eda.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eda.sakh.com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크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